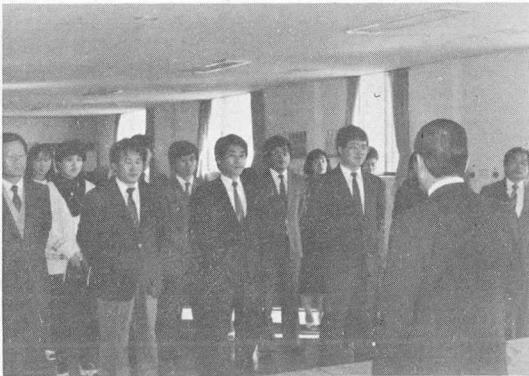


협회소식

본회, '90년 시무식 거행



본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해 노영한 전무이사, 김형균 김정소장 및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0년도의 대내외 여건은 '89년에 비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돈산업이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본회는 양돈인들을 위한 생산자단체인 만큼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 '90년도 회비미납 회원에 회원 의무 이행촉구서 보내

본회는 '89년도 회비미납 회원에 대하여 개별로 공문을 보내, 회원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회는 지난 1월 12일, '89년도 회비 및 홍보분담금을 지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미납 회원이 많다고 지적, 미납회비 및 홍보분담금을 1월 2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회가 이번 촉구서를 보낸 것은 정관제7조(회원의 의무), 지부설치규정 제8조(회비납부 의무), 지부운영 규정 제10조(회비부과)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본회는 본회가 보낸 '89년도 회비 및 홍보분담금 미납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총무부로 연락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본회,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등 3명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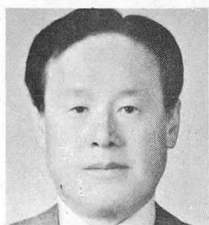
본회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등 3명이 김식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89년 축산진흥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축산진흥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어촌 복지향상과 농정발전에 기여한 축산진흥유공자 93명과 1개 단체(대한양계협회)에 대하여 표창했는데, 양돈업계에서는 본회 이사이며 충북도협의회장인 김철수씨와 이리 익산지부장인 윤주성씨,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홍승린 주임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수상자는 농림수산부 축산국 대가축과 김옥호 수의사보를 비롯해 국립종축원 3명, 국립동물검역소 3명,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1명, 농촌지도소 3명, 가축위생연구소와 시험소 6명, 각 시(도)·군공무원 21명, 도종축장 2명, 한국마사회 3명,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지역축협·양돈조합 등 21명, 한냉 1명, 양돈협회 1명,

양계협회 1명, 축산물유통사업단 1명, 양축가 25명 등이며, 대한양계협회는 단체로서 수상을 했다.

전남도협의회, 안국환 전 이사, 조길현 전 순천승주지부장에 공로패 수여



안국환씨



조길현씨

전남도협의회(회장: 김태환)는 지난 1월 15일 나주군 금촌면 멧돼지농원에서 전남도내 각 지부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업을 그만 두는 안국환 전 이사와, 조길현 전 순천승주지부장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 김태환 전남도협의회장은 두 사람에게 전남도내 회원 일동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안국환씨는 양돈협회 초창기때부터 협회에 참여하면서 협회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안국환씨는 본회의 이사로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양돈업계에 불리한 제도개선과 협회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88년에는 양돈인대상을 수상하는 등 양돈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또한 조길현씨는 '87~'88년도에 순천승주지부장을 역임하면서 회원확충과 지부발전에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이들은 개인 사정으로 양돈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편집위원회의 개최

본지는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정숙근 박사(축산시험장), 김인호 이사(서울신약), 예

재길 차장(한국바이엘화학) 등 편집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집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월간양돈 '89년 12월호와 '90년 1월호의 편집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2월호와 3월호의 전반적인 편집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편집위원들은 최근 여러가지 잡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결같이 게재된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 월간양돈은 전문지인 만큼 전문성을 살려 외국의 최신정보와 사양관리·질병 등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 그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양돈업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밝혀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울주지부, 돈육소비촉진 운동 벌여



울산울주지부(지부장: 성정표) 회원 및 회원가족 80여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울산시 시외버스터미널·중앙시장·역전시장·신정지하도 등 4개소에서 돈육소비촉진 운동을 벌였다.

이날 회원들은 「돼지고기 한근 더 먹어 우리농촌 살립시다」라는 프랑키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이것이 돼지고기의 진짜 모습이다」「어때!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 등이 인쇄된 팸플릿 1,500여장을 나누어 주는 등 소비홍보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회원들은 각자 1마리씩 출하해 도축한 돼지고기를 아이스박스에 500g씩 담아 랩으로 포장한 후 소비

홍보 글자가 새겨진 스티카를 부착,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성의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협의회 의 개최



경기도협의회(회장: 이명복)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 양돈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각 지부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협회의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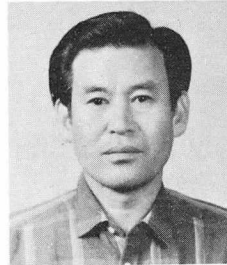
이명복 협의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89년도 도협회회 결산보고에 이어 '9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각 지부장들은 '90년도 도협회의의 주요 활동 사항과 양돈경기 전망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오는 2월 정기국회에 배합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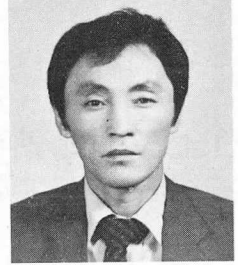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 앞서 이명복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9년은 정부의 정책부진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으로 양축농민들이 기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정부에 대응하고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충남북지부장회의 개최

충남북지부장들은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충북 금



이상구
협의회장



김철수
협의회장

수장에서 이상구 충남도협의회장과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그리고 충남북지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북지부장들은 배합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생산비를 두당 10만5천원으로 볼때 원가개선효과는 5%, 금액으로 5천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적극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들은 또, 회원들은 돼지출하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하배정제를 살려 도축장으로부터 배정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영한 전무이사가 참석, 최근의 양돈업 동향과 중앙회 활동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라남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김태환
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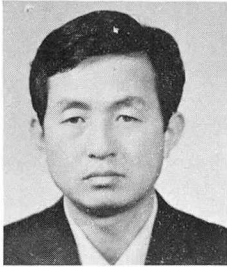
전라남도협의회(회장: 김태환)는 지난 1월 15일 나주군 멧돼지농원에서 전남도내 각 지부장과 회원 및 지역양돈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9년도 도협의회결산보고에 이어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도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전남지역 각 지부의 돼지출하 문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참석하여 ▲'90년도 양돈경기 전망 ▲최근 협회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포지부장에 이종열씨 유임



이종열 김포지부장

김포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 지부장에 이종열 현 지부장(54세)을 유임시키는 등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 이종열(우일농장)
- ▲부지부장 : 심혁창(삼형제농장), 조종현(현호농장)
- ▲총무 : 장근풍(금월농장)
- ▲감사 : 이윤재(이건농장)
- ▲운영위원 : 심석수, 박순양, 최영도, 조중안, 김영식, 윤상익, 왕기창, 장원균, 안장현
- ▲감사 : 송태형, 조승호

울산울주지부장에 성정표씨 유임

울산울주지부는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



성정표 울산울주지부장

기만료된 임원을 개선, 새 지부장에 성정표 현 지부장을 유임시키고 아래와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 ▲지부장 : 성정표
- ▲부지부장 : 김규식, 김순복
- ▲총 무 : 유재환
- ▲감 사 : 주복태, 김광수
- ▲운영위원 : 김종태, 임춘택, 황남도, 정대용, 문이수, 송규식, 이규진, 전강민, 서정목
- ▲상 무 : 정병석

광주지부장에 최희태씨 유임



최희태 광주지부장

광주지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지부사무실에서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지부장에 최희태 현 지부장을 유임시켰다.

'89년도 사업결산 보고에 이어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지부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